

소식 역사인물론의 특징*

안희진**

【목 차】

1. 서론
2. 소식의 역사인물론 개괄
 - 1) 소식 역사인물론 문장의 규모
 - 2) 소식 역사인물론 문장의 소재
3. 역사인물에 대한 소식의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 1) 긍정적으로 평가된 인물들
 - 2) 부정적으로 평가된 인물들
4. 문학적 성취와 한계
5. 결론

【초록】

문장을 보면 소식은 역사 인물과 그에 관련된 사건의 객관적 사실보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본질적인 문제인, 당사자의 내재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식은 역사인물론을 쓸 때 그 인물과 그 인물이 처했던 역사사건을 동시에 논한다. 이는 단순한 인물에 대한 품평이 아니라, 그 인물이 그 당시 상황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역할을 어떻게 했느냐를 보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물론은 한 인물의 역사적 역할의 공과를 바탕으로 그 원인을 분석한 글이다. 소식의 이런 글들은 대체로 진부한 설교가 아니라 다양한 관점으로 심도 있게 파헤침으로써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는 당사자에게 있다 反求諸身”는 관점을 갖고 사람을 평가했다.

【키워드】 소식, 소동파, 산문, 역사인물론, 「伊尹論」, 「論管仲」, 「留侯論」

* 본 논문은 2016년 11월 19일 대한중국학회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 자료를 수정 보완한 것임.

** 단국대학교 중국어과 교수 (china@dankook.ac.kr)

1. 서론

游國恩 등이 지은 『중국문학사』는 이렇게 말한다. “소식이 집중해서 쓴 書劄, 雜記, 雜說, 小賦 등은 대부분 내용과 의견을 섞어 가며 자유분방하게 작자 본인의 솔직한 흥금을 털어 놓았다. 또한 소식 본인의 인생과 문학예술에 대한 견해나 관점을 써서 정치 관련 글(“政治散文”) 보다 훨씬 뛰어난 성취를 이뤘다.”¹⁾ 이 책의 소식 산문에 대한 언급에는 역사론이나 역사상의 인물을 다룬 “政治散文”이 그의 다른 문장에 비해서 다소 손색이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소식에 대한 이런 평가는 그뿐만이 아니다. 원행패 주편의 『중국문학사』 역시 소식의 정치 산문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식의 젊은 시절 역사론 문장은 중형가 같은 분위기를 보여 종종 놀랄만한 견해를 보이지만 이치에는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역사론이나 정치론 문장들은 비록 소식 산문의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지만 잡설이나 서찰 또는 서발 등의 문장이 오히려 소식의 문학적 성취를 더욱 잘 보여주는 글들이다.”²⁾

역사인물론 문장들이 소식의 다른 문장보다 못하다는 이런 견해는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일까. 연구자는 소식의 독특한 발상과 새로운 관점으로 점철된 역사인물론을 읽을 때마다 유구한 등의 이런 관점이 과연 어떤 시각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일까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중국 문학 연구자들의 이런 관점은 정확한 견해일까. 이런 견해는 과연 소식의 역사인물론 산문이 가진 문학적 가치와 독특한 매력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 본 연구가 주목한 부분은 바로 그것이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중국문학사에서 소식의 역사인물론 산문이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최근 소식의 산문을 선집한 사람들도 그들이 선택한 역사인물론 문장은 극히 적다. 王水照 選注 『蘇軾選集』(上海古籍出版社, 1984) 28편의 산문 중 「留侯論」만 실려 있다. 劉乃昌이 選注한 『蘇軾選集』(齊魯書社, 2005년)의 산문 19편 중(賦는 포함하지 않음) 오직 「留侯論」 한 편만 있을 뿐이다. 石聲淮 唐玲玲 選注 『蘇軾文選』(上海古籍出版社, 1989)은 총 95편 중 「魏武帝論」, 「劉侯論」, 「曹錯論」, 「韓愈論」 등 4편을 실었다. 대체로 역사인물론 문장의 선정 비율이 높지 않다. 그러나 청대의 吳楚材, 吳調侯 두 사람이 合編한 『增批古文觀止』는 소식의 산문 15편을 실고(賦제외) 「范增論」, 「留侯論」, 「賈誼論」, 「晁錯論」 등 4편의 역사인물론을 실어 전체 산문 중 수량의 26.7%가 된다.³⁾ 과거 문인들이 소식의 역사인물론을 이처럼 중시하고 비중을 뒀다는 사실에 주목한 연구자는 이들 산문이 갖고 있는 문학적 가치를 다시 한 번 조명해 보고자 한다.

1) “蘇軾集中的書劄、雜記、雜說、小賦等，大都夾敘夾議，隨筆揮灑，表現了作者坦率的胸懷，也表現他對人生對藝術的見解和愛好，成就遠在他的政治散文之上。” 游國恩·王起 主編，『中國文學史』，p.57.

2) 他(蘇軾)早年寫的史論有較濃的縱橫家習氣，有時故作驚人之論而不合義理。……史論和政論雖然表現出蘇軾非凡的才華，但雜說、書劄、序跋等議論文，更能體現蘇軾的文學成就。” 袁行霈 主編，『中國文學史』，p.68.

3) 周國林，「評蘇軾的人物史論」，『長沙電力學院學報』，제16권2기，2001년 5월，p.91 참조.

2. 소식의 역사인물론 개괄

1) 소식 역사인물론 문장의 규모

고대 문장의 문체에서 “論”이란 공덕비나 사당비의 비문과는 달리, 어떤 사물이나 인물에 대한 찬양과 송축의 글이 아니다. “論”은 특정 사건이나 사물 또는 인물을 평론한 것이다. 孔凡禮 집교본의 『蘇軾文集』을 보면 제2권에서 제5권까지만 해도 총 70개의 문장이 “論”으로 엮여 있다. 이 중에서 전적으로 특정의 역사 인물을 논한 문장은 송대 다른 어느 문인보다 많다. 주요 대상인물을 보면 伊尹, 周公, 管仲, 商鞅, 孫武, 孟子, 荀子, 韓非, 秦始皇, 漢武帝, 項羽, 范增, 張良, 賈誼, 魏武帝, 諸葛亮, 宋襄公, 漢高祖, 士燮, 子思, 樂毅, 留侯, 曹錯, 霍光, 揚雄, 韓愈, 武王, 魯隱公, 孔子, 范蠡, 伍子胥, 李斯 등이다. 소식은 이들을 논하면서 人才, 用兵, 制禮, 愛民 등의 내용으로 자신이 본 관점의 새로운 견해를 발표한다. 제2권에서 제4권에서 인물을 언급한 것만 총 40편 가까운 문장에 이른다.⁴⁾ 시기별로 보면 신진은 「伊尹論」 등 21편, 秦漢시기는 「秦始皇帝論」 등 12편, 삼국시기는 「魏武帝論」, 「諸葛亮論」 등 2편, 唐代 인물은 「韓愈論」 한편이다. 뿐만 아니라 역사 사건을 평하는 『소식문집』 제65권의 “史評”만 보아도 역시 역사인물에 초점을 맞춰 특정 사건이나 일화를 통해 소식 자신의 평론을 가한 문장이 총 88편이나 실려 있다.

2) 소식 역사인물론 문장의 소재

소식의 이런 역사인물론을 살펴보면 제왕들과 제왕을 보좌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외의 사상가들이나 명인들로 나뉜다. 管仲의 경우는 「管仲論」, 「論管仲」, 「管仲分君謗」, 「管仲無後」⁵⁾ 등 4편의 문장에서 다뤘다. 이는 소식이 제왕을 보필하는 신하로서 가장 관심을 둔 사람의 하나가 관중임을 알게 해 준다. 이처럼 수많은 소식의 역사인물론 문장이 비록 계통적으로 통일성을 띤 채 쓰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소식이 사람을 논하는 데에 일정한 주안점이 드러날 것이다. 소식은 역사인물을 언급하면서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을까. 주로 지적한 문제점은 무엇일까.

역사상에 나타났던 사람을 논한다는 것은 결국 완전히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자신의 주관에 더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소식도 이와 같은 수많은 역사인물론 속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의 모형을 제시한다.⁶⁾ 이런 전반적인 인물론을 개괄하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로 나뉜다. 그 전모를 개괄하여 볼 때, 긍정적인 관점으로 거론된 사

4) 花妮娜, 「蘇軾“史論文”簡論」, 『渭南師範學院學報』, 第26卷第1期, 2011年1月.

5) 『蘇軾文集』, pp.87-88, pp.147-148, p.1999, p.2000. 이하 소식의 문장은 모두 『蘇軾文集』, 中華書局, 1986년판을 기준으로 했음.

6) 陳曉芬, 「蘇軾史論文中的人格思考」, 『吉安師專學報』(哲學社會科學), 21집, 2000.

람은 周公, 管仲, 商鞅, 孟子, 荀子, 韓非, 秦始皇, 漢武帝, 項羽, 范增, 魏武帝, 士燮, 子思, 揚雄, 韓愈, 魯隱公, 孔子, 伍子胥, 李斯 등이다. 반면에 부정적으로 평가된 인물은 孫武 樂毅 范蠡 賈誼 曹錯 荀卿 李斯 諸葛亮 등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張良의 경우는, 장량이 류방을 도와서 천하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가 “참을 줄 아느냐 없느냐”(能忍與不能忍)가 관건 이었다고 한다.⁷⁾ 소식이 칭찬과 선망을 마지않았던 伊尹은 사심 없이 군왕을 보좌함으로써 국가 사직을 훌륭하게 유지 발전시킨 재상의 역할에 흠모의 정과 함께 대단한 칭찬을 남겼다. 霍光의 경우 그가 “재능은 부족했으나 기개가 넘쳤음”(才不足而節氣有餘)을 칭송한다.⁸⁾ 소식은 또한 漢高祖에게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품을 간직한 제왕이며 천하의 정세를 잘 파악했던 사람”(古之善原人情而深識天下之勢者)이라고 평가했다.⁹⁾

한편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 중에 武王은, 군왕을 시해하고 왕이 됐으니 성인으로까지 평가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 소식의 관점이다. 宋襄公의 경우 흑세무민의 위선적인 군주였으며, 諸葛亮에 대해서는 “인의와 전술을 뒤섞는 것으로 천하를 얻으려 했다”(仁義詐力雜用以取天下)고 지적했다.¹⁰⁾ 또 孫武는 지략은 있지만 “그 지략을 사용하는 일에는 서툴렀다면서 서투름이란 공을 세우려는 조금함에 있었다”(其所短者, 智有余而未知其所以用智)고 한다.¹¹⁾ 范蠡의 경우는 재능은 있었으나 도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성공한 뒤에는 그것을 버려야 함에도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유지했다.(才有余而道不足, 功成、名遂、身退, 而心終不能自放)는 것이다.¹²⁾ 다음으로 樂毅에 대해서는, 전쟁에서 해서는 안 될 ‘인의’라는 가치를 적용해서 실패한 사례를 지적했다. 악의의 ‘인의’는 소극적이고 편협한 ‘인의’라는 것이다. 賈誼의 경우는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했다.(不能自用其才)고 말하면서, 모든 것은 시기나 군왕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자신이 자초한 것임을 알아야한다(未必皆其時君之罪, 或者其自取也)고 말한다.¹³⁾ 또한 曹錯에 대해서는 자신의 살 길을 살피다가 자신이 죽는 화를 자초한 잘못(錯之所以自全者, 乃其所以自禍歟!)이 있음을 말한다.¹⁴⁾ 『韓非論』에서는 한비의 각박하고 참혹한 사상이 노자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사기에서 노자 한비열전을 하나로 묶은 것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荀卿論』의 주 내용은 이사가 많은 서적을 불태우고 흑독한 정치를 한 것은 그의 스승 순자가 지나친 주장으로 천하를 위태롭게 한 결과라는 것이다.

7) 蘇軾, 「留侯論」, p.103.

8) 蘇軾, 「霍光論」, p.108.

9) 蘇軾, 「漢高帝論」, p.81.

10) 蘇軾, 「諸葛亮論」, p.112.

11) 蘇軾, 「孫武論上」, p.91.

12) 蘇軾, 「論范蠡」, p.153.

13) 蘇軾, 「賈誼論」, p.105.

14) 蘇軾, 「曹錯論」, p.107.

3. 역사인물에 대한 소식의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1) 긍정적으로 평가된 인물들

인물론이 선악 공과 등으로 구별될 수만은 없지만 대체로 좋은 평가와 그렇지 않은 평가로 대별된다. 우선 소식에 의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인물 중에서 특히 소식의 이상에 찬탄을 금치 못하게 한 인물이 이윤이다. 이윤을 비롯해 관중, 장량, 곽광 등 소식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한 인물들을 살펴보자.

① 伊尹(기원전1649-1549) - 『伊尹論』을 보면 소식은 이윤이 자신의 능력을 다해서 천하를 위해 공헌했을 뿐 아니라 그 전후 언제이건 사심 없이 큰 뜻을 펼쳤다고 칭찬한다. 伊尹은 상나라 왕 太甲이 즉위하기 전에 이미 4명의 왕을 보좌한 재상이다. 『사기』를 보면 새로 즉위한 태갑이 왕 역할을 못하자 이윤은 왕인 그를 추방해서 3년간 유폐시켰다. 태갑이 반성하고 왕 노릇을 할 만하다고 판단되자 이윤은 그를 다시 모셔와 국정을 온전하게 유지했다. 태갑도 이윤도 이 과정에서 갈등이 없었다. 소식은 이윤을 논하면서 “천하의 큰일을 하는 사람은 커다란 절조를 갖고 있다.”고 말문을 연다. 소식이 보기에 그는 세상의 일반적인 기준을 뛰어넘어 자신의 커다란 이상을 실천한 사람이다. 이윤이 太甲을 폐하고도 천하의 신임을 얻은 것은 그가 커다란 절조와 포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¹⁵⁾ “천하의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고, 완전히 발휘된 자신의 능력이 있었으므로 천하의 일을 처리함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고 하면서, 이윤이 그런 경지에 이른 것은 비로 이윤의 ‘사심 없음’ 때문이라는 것이 소식이 본 이윤의 대단함이다. 이런 관점 때문에 소식은 이윤에 대한 유종원의 칭찬을 평가 절하한다. 유종원도 일찍이 이윤에 대한 칭송의 글을 남겼다. 유종원은 “성인이 세상이 나타나는 것은 夏나 商 같은 그 왕조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이다.(聖人出于天下, 不夏商其心, 心乎生民而已)¹⁶⁾라고 하면서 이윤도 그런 민본 중심의 사상을 가진 성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소식은 유종원이 자기 개인의 입장¹⁷⁾을 빗대어 이윤을 칭송한 것일 뿐이라면서 “성인의 뛰어난 점은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¹⁸⁾고 지적한다. 유종원의 글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관점이라는 것이다.

② 管仲(약BC723-BC645) - 소식은 『論管仲』에서는 관중이 어췌의 정치를 잘 실현했다고 평가하면서 그는 과거의 7인의 덕행과 비교된다고 하면서 8인의 배덕행위와는 거리가 멀을 강조한다.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란 마치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처럼 조심해야

15) 辦天下之大事者, 有天下之大節者也。立天下之大節者, 狹天下者也。夫以天下之大, 而不足以動其心, 則天下之大節有不足立, 而大事有不足辦者矣……夫天下不能動其心, 是故其才全。以其全才而制天下, 是故臨大事而不亂。『伊尹論』, p.84.

16) 柳宗元, 『伊尹五就禁贊』.

17) 유종원은 중당의 순종과 현종 시기 王叔文 등과 함께 개혁을 주도하다가 탄핵되어 귀양을 감. 일명 “永貞革新” 사건.

18) 聖人之所以能絕人者, 不可以常情疑其有無。『柳子厚論伊尹』, p.2036.

하고 병이 생기기 전에는 조심하며 병이 생긴 뒤에는 약을 투여해야 한다고 한다. 약간의 중세가 있다고 함부로 약을 투여하면 안 되니, 이는 감기나 발열 중세가 있다고 독한 약을 주면, 병 때문이 아니라 약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먼저 인덕으로 백성들을 따뜻하게 돌보는 것이 중요하지, 갖가지 명분을 앞에서 백성을 몰아붙이고 죽이는 것은 안 된다는 의미다. 관중의 군대 제도는 분명하고 확실해서 줄긋기의 줄 같고 바둑판의 선 같아 규격이 선명하다. 피를 피우려 해도 피울 수 없다. 법령의 이런 간결성 때문에 병사들은 힘이 남아 있는 한 죽을힘을 다한다. “繁而曲”의 병법은 방어에 유리해서 결코 쉽사리 패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승패를 가르는 것은 “簡而直”의 병법임으로 관중은 이런 선택을 한 것이다.¹⁹⁾

③ 張良(약BC250-BC186) - 소식의 역사인물론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문장은 「유후론」이다. 「유후론」의 경우 소식은 장량에 대한 배경 설명 없이 곧바로 결론을 얘기한다. 즉 대단한 인내심과 커다란 도량으로 상황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만이 커다란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⁰⁾ 최종적으로, 소식은 항우가 패배한 이유도 바로 인내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그 인내심은 그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웅지에서 나온다고 한다. 이런 도도한 논변이 소식 역사인물론의 특징이다. 명대의 楊慎은 『三蘇文範』 卷七에서 이렇게 말한다. “소식의 문장은 장강대하처럼 일사천리로 흐른다. 도도하게 흐르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글 솜씨는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을 정도이며 대단한 필치로 내용과 논리를 펼친다. 「유후론」의 경우가 바로 그 탁월한 솜씨를 잘 보여주는 글이다.”²¹⁾

④ 霍光 - 광광(?~BC68)에 대해서 소식은 사직을 지키는 데에는 재능보다는 절조와 기개가 중요하다고 하며 특히 기개의 중요성을 제일로 여긴다. 소식은 그가 그의 능력이 아니라 절조와 기개로 국가의 명운을 결정지었다고 평한다.²²⁾ 소식의 이런 지적을 보면 광광의 경우 재능과 지식의 부족이 오히려 그의 절조와 포부를 크고 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 아이러니가 있다.

그 외에도 소식은 적지 않은 인물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예를 들면 소식은 한고조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인간적인 인품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 (「漢高帝論」) 소식의 曹操(155-220)에 대한 평가는 사뭇 높은 편이다. 진정한 치국의 지혜를 갖춘 조조는 천하의 이해를 꿰뚫어 보고 득실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다.²³⁾ 소식은 커다란 혜안을 가진 사람은 커다란 시각으로 문제를 파악한다고 하면서 한 시대를 움직인 제왕들의 인간됨에 주목한다. 「穆生去楚王戊」에서는 목생이 미세한 정치적 변화 속에서 예측불허의 미래를 감지하고 초왕을 떠난 것은 그의 탁월한 견지 때문이었다고 한다. 소식은 이를 신공이나 백

19) “管仲之制其兵，可謂截然而易曉矣”，“如貫繩，如畫棋局，疏暢洞達，雖有智者無所施其巧。故其法令簡一，而民有余力以致其死。”「管仲論」，p.87.

20) 古之所謂豪傑之士，必有過人之節。人情有所不能忍者，匹夫見辱，拔劍而起，挺身而鬥，此不足爲勇也。天下有大勇者，率然臨之而不驚，無故加之而不怒，此其所挾持者甚大，而其志甚遠也。「留侯論」，p.103.

21) 楊慎「三蘇文範」卷七：東坡文如長江大河，一瀉千裏，至其渾浩流轉，曲折變化之妙，則無複可以名狀，而長于陳述敘事。留侯一論，其立論超卓如此。曾棗莊，『蘇文彙評』，四川文藝出版社，2000，p.145.

22) “至于捍社稷、托幼子，此其難者不在乎才，而在乎節，不在乎節，而在乎氣。”「霍光論」，p.108.

23) “世之所謂大智者，知天下之利害，而審乎計之得失，如斯而已。”「魏武帝論」，p.82.

생과 비교하면서 올바른 의식이 올바른 처신을 유지하게 한다고 평가한다. 이와는 반대로 「論項羽范增」에서 범증은 거취의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결국 항우에게 의심을 사게 되며 역사에서 퇴장당하는 결말을 맞게 된다고 보았다.

2) 부정적으로 평가된 인물들

소식이 역사인물론에서 과거 인물들의 공과를 새롭게 분석하고 참신한 관점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모두 현실의 문제와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소식이 張儀의 역사 고사를 애기한 것은 현실의 왕안석의 기군망상의 정책을 지적하기 위해서다.²⁴⁾ 것처럼 신하된 자들의 인격적 결함이나 견식의 부족이 초래한 국가적 재앙을 소식은 역사인물론에서 하나하나 짚어나갔다. 다음은 소식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비판한 인물들이다.

① 魯隱公(?~BC712) - 노은공이 해공의 유지를 따라 환공의 정치를 회복했다면 그나마 인의 정치를 했다고 들었을 테지만 부패한데다가 公子翬의 위협을 인지하고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작은 어짊, 부족한 지혜로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다.²⁵⁾

② 孫武(약BC545-BC470) - 「孫武論」에서 소식은 손무가 지혜를 가지고도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지적한다. “其所短者, 智有余而未知其所以用智” 소식에 보기에 손무는 군사 전략으로 공적을 세우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이기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詭와 詐라는 것을 강조할 뿐 道에 맞는 이치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군사적인 것에만 집중하여 이기는 것만을 생각한 결과 커다란 상황파악을 못했다는 것이다. 소식의 말대로라면 손무의 지혜는 기교에 흘렀고 결코 왕도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의 “不役于利也”라는 주장은 도가 사상에 연결된다. 이는 「이윤론」에서 말한대로 “以天下之大而不足以動其心”이라는 말과 상통하는 것으로 진정 커다란 왕도의 그릇은 승부와 성패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③ 范蠡(BC536-BC448) - 「論范蠡」의 경우, 범려는 월왕 구천이 합려에게 복수를 한 뒤 국가를 운영하려 할 때 물러나 안심입명한 사람이다. 소식은 범려가 물러나서 천금의 부를 축적하고 산 것은 그가 구천과 다름없이 몸만 살리고 정신은 여전히 세속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한다. 오히려 노중런처럼 세속에 초월해서 편안히 은둔함만 못하다는 것이다.

④ 樂毅(BC280년 좌우 생존) - 「樂毅論」을 보면 악의는 연나라의 명장으로 제나라의 70개 성곽을 함락시키는 전공을 세웠다. 그러나 거읍과 즉묵만은 함락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나라의 장수 진단행이 반간계를 이용해서 악의를 대장군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자 결국 함락에 실

24) 張儀欺楚王以商於之地六百里。既而曰：「臣有奉邑六里。」此與兒戲無異。天下莫不疾張子之詐，而笑楚王之愚也。夫六百里豈足道哉，而張子又非楚之臣，為秦謀耳，何足深過。若後世之臣欺其君者，曰：「行吾言，天下舉安，四夷畢服，禮樂興而刑罰措。」其君之所欲得者，非特六百里也，而卒無絲毫之獲。豈惟無獲，其所喪已不可勝言矣。則其所以事君者，乃不如張儀之事楚。因讀「晁錯傳」，書此。「張儀欺楚」，p.2004.

25) 蘇子曰：盜以兵擬人，人必殺之。夫豈獨其所擬，塗之人皆捕擊之矣。人與盜非仇也，以為不擊則並殺己也。隱公之智，曾不若是塗人也，哀哉！隱公，惠公繼室之子也，其為非嫡，與桓均耳，而長于桓。隱公追先君之志而授國焉，可不謂仁人乎？惜乎其不敏于智也。使隱公誅翬而讓桓，雖夷、齊何以尚茲？「魯隱公二」，p.145.

패하고 만다. 이에 대해서 소식은 반간계가 그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악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 문제란 악의가 인의의 본질을 모르고 인의의 방법으로 두 지역을 함락시키려고 한 것은 근본적으로 실책이었다는 것이다. 왕이 지켜야 할 법도가 있고 장수가 지켜야 할 법도가 있는데 악의는 (인의라는) 왕의 법도를 시행함으로써 전투의 책임자로서 그릇된 판단을 했다(“夫王道者, 不可以小用”)는 것이다. 그의 지적은 마치 송양공이 잔인한 짓을 했음에도 정작 중요한 전투에서 인의를 표방하다가 패전한 고사를 연상케 한다. 소식은 송양공의 패배 역시 양공 본인의 문제였음을 말한다.

⑤ 秦始皇(BC259~BC210) - 소식은 진시황이 지나친 법률 지상주의인 상양의 정책을 받아들인 것이 실책이었으며 이사 같은 모략가를 가까이 둔 것이 결국 진나라의 멸망을 초래했다고 한다. 소식이 상양과 더불어 가장 혐오했던 인물은 상양홍이다. 그는 국가의 재정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한 고대 경제 전문가였다. 그러나 소식에 보기에 상양홍은 백성을 속여서 그 고혈을 짜다가 황실을 살찌게 한 최악의 모략가였다. 사람을 잘못 선택한 것이 결국 국가의 멸망과 관련 있다는 관점이다.²⁶⁾

⑥ 賈誼(BC200~BC168) - 그는 「賈誼論」에서도 같은 관점으로 가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의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당시의 군주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가의 본인이 인내심을 갖고 자신의 기회를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다. 소식은 한문제가 가의를 중용하지 않은 게 잘못이 아니라 가의가 한문제를 활용하지 않은 게 잘못이라는 것이다. 소식의 관점으로는 가의가 조급한 마음으로 성급한 성취를 하려 했고 그것이 결국 가의를 실패하게 했다는 것이다.

⑦ 晁錯(BC200~BC154) - 조착이 황제의 안위를 위해서 번진의 땅을 감축하는 방안을 실시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번진이 반란(7국의 난)을 일으켰을 때 (자신이 나가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뒤로 빠진 채 황제에게 그 저항을 감당하게 한 것은 결국 자신의 죽음을 초래한 것이다.²⁷⁾ 소식은 여기서 문제의 본질이 조착 본인의 태도와 인품에 있음을 꿰뚫고 있다. 조착이 몸소 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면에 나섰다면 원앙이 조착을 죽여서 반란군을 무마하라는 의견은 부정됐을 것이라는 게 소식의 생각이다.²⁸⁾

주목할 만한 사실은 소식이 추구한 역사인물들의 이상적인 인격이 그 인격 자체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소식은 그 개인의 특징과 결합이 그가 처한 상황과 역사 사건의 성패와 승부를 가르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좋은 인격이 목적이 아니라 성공이 목적이다. 이는 사심을 버리고 전체적인 상황과 함께하여 결국은 안 되는 일이 없게 하라는 노자의 치국 사상과 다름이 없다.

26) “聖人爲天下, 不恃智以防亂, 恃吾無致亂之道耳.”, “始皇制天下輕重之勢, 使內外相形以禁奸備亂者, 可謂密矣.” 『秦始皇帝論』, p.79.

27) “擇其至安, 而遺天子以其至危.” 『晁錯論』, p.107.

28) “晁錯之死, 人多歎息, 然未有說出被殺之由者. 東坡之論, 發前人所未發……” 『古文觀止』.

4. 문학적 성취와 한계

송대는 조판 제작을 통한 서적의 대량 유통, 시민계층의 확대에 의한 신흥 지식인들의 출현, 시문 위주에서 경서 책문 위주의 과거제도 개편 등과 같은 커다란 사회적 변화 속에서 문인들은 너도나도 역사 평론 산문을 쓰게 된다. 문인들은 경전과 역사 산문에 집중하게 된다. 고대 문헌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지식을 축적했을 뿐 아니라 역사를 평론하는 방식으로 당시의 사회와 정치를 풍자하는 일종의 평론 분위기를 이뤘다. 당송팔대가 중에서 여섯 명이 송대 인물인 것은 이런 배경 속에 나타난 것이다. 역사적 사건은 물론 역사상의 유명인물을 새롭게 조명하고 평가함으로써 이들은 자신의 출중한 견해를 과시하고자 했다.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지방이나 중앙의 과거에 응시하려면 역사에 관한 알만한 지식은 물론 탁월함을 갖춘 식견이 준비되어야 했다. 달리 말하면 역사 인물에 대한 평론은 과거 시험을 위한 기본이었으며 절대적인 준비과목이었다. 소식 본인도 어렸을 적의 공부는 순전히 과거 공부일 뿐이었다.²⁹⁾고 하며 그런 결점을 언급한 적이 있다. 과거에 합격하고 구양수에게 발탁되며 단번에 경사를 놀라게 했고 그 이름을 천하에 떨치게 된 것³⁰⁾은 소식의 천재성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가 어려서 부모의 훈도 하에 수많은 경전과 각종 문헌을 공부한 기본실력이 발현된 것이다. 그러므로 제환공 아래에서 재상을 한 관중의 경우, 소식은 4편의 문장으로 그를 논했고 그의 부친 소순은 물론 아우 소철까지 「관중론」을 쓰지 않은 사람이 없다.

소식은 글을 쓴다는 것이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꽃이 피고 구름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가슴속에서 솟아 나와야 한다고 한다. 그는 「남행전집서」에서 이런 관점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毛滂의 문장을 칭찬하는 글에서 “요즘 글 쓰는 사람이 많고 훌륭한 문장도 많지만 조카의 글처럼 맑고 아름다우며 매끄럽게 읽히는 글은 드물다”(蘇軾, 「答毛滂書」)고 말한다. 소식이 추구한 것은 남에게 보여주려고 꾸미고 조작하는 글이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저절로 쓰인 것 같은 문장이다. 그리고 그런 문장은 무엇인가 사회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³¹⁾고 한 것처럼 반드시 현실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는 유용한 글이어야 했다.

소식의 문장을 보면 합리적인 논점이 중흥으로 펼쳐지고, 명확한 비평으로 문장의 앞뒤가 연결되는 특징을 띤다. 이런 그의 문장 품격은 후세에 대단한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젊은이들의 과거 시험에 필독자료가 되었다. 당시에 유행하는 말 중에 소식의 문장에 익숙하면 (과거에 붙어서) 양고기를 먹게 되고, 익숙하지 못하면 (과거에 떨어져서) 야채 음식만 먹게 된다³²⁾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 편의 역사인물론을 보면 소식은 그들의 성공과 실패, 공적과 과오를 언급하면서도 단순한 인의도덕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았다. 인물을 논할 때는 객관적인 정황

29) “少年時，讀書作文，專爲應舉而已。”蘇軾，「答李端叔書」，p.1432.

30) “隱然名動京師”，“蘇氏文章遂擅天下”，歐陽修，「故霸州文安縣主簿蘇君墓志銘」，『三蘇全書·第六冊·蘇洵集·附錄一』，語文出版社，2001.

31) “有爲而作”「晁繹先生文集序」，p.313.

32) “蘇文熟，吃羊肉；蘇文生，吃菜羹。” 이 말은 출처가 분명치 않으나 소식과 관련된 후대의 문장에 종종 인용됨.

보다는 개인의 내면적 결함이나 인격적인 모순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했다.

예를 들면 소식은 공자가 남긴 말이 평이하고 바를 뿐, 특이하게 해서 남이 좋아할만한 말은 감히 하지 않았다고 한다.³³⁾ 소식은 공자의 이런 바른 자세가 공자세가에 그대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이사 같은 지나친 제자를 키워낸 순자의 학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순자는 특이한 학설을 강조하고 대단한 이론을 내어놓고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우매한 자는 대단한 줄 알고 놀라워하고 소인들은 대단한 줄 알고 기뻐했다는 것이다. 소식은 맹자와 순자 양웅의 학설이 서로를 배척하고 경쟁하면서 공자의 본뜻이 흐려졌다고 하면서, 이들이 학설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한다.³⁴⁾ 소식은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는 맹자의 이론에 반대해서 ‘악하다’는 순자의 이론이 나왔고 이어서 양웅이 ‘선악이 뒤섞였다’고 해서 서로 주장만 달리 했다는 것이다.

소식은 제갈량을 논하는 글에서 그가 인의와 사술 무력을 모두 뒤섞어 전술을 발휘하다 보니 수년간 위나라와 대치하면서도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 패배했다고 하면서³⁵⁾ 탕왕이나 무왕은 적에게 빈틈이 있어도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는데 그 까닭은 그들에게 커다란 인품에서 배어 나오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⁶⁾

소식이 주장한 ‘八面受敵法’이라는 독서 방법을 보면 그가 고대 문헌을 보면서 새로운 시각과 견해를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방팔방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적군을 막아내기 위한 독서법이란 다양한 각도에서 상황을 봐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다 보니 소식 역시 역사 문헌에서 그 인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읽게 되고 그것은 종종 역사 사실과 다른 이해를 하거나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칠 가능성에 직면한다. 『答王庠書』에서 소식은 자신이 젊은 시절에 역사인물을 논할 때 종종 과도한 실책의 관점이 있었다고 인정한다. 사실 역사인물론이라는 글들은 역사서가 아니라 역사를 소재로 한 하나의 문장이다. 문인들이 역사를 읽는 이런 방식은 역사사실을 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라는 소재를 기초로 해서 오늘의 현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5. 결론

소식은 중국의 역대 문인 중 고대 인물에 관한 가장 많은 평론을 남긴 사람이다. 이런 글은 단순히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서 역사 속의 사람됨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런 논점은 당연히 북송 시기의 현실에서 돌이켜 볼만한 가치 있는 내용이었다.

문장을 보면 소식은 역사 인물과 그에 관련된 사건의 객관적 사실보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본질적인 문제, 달리 말하면 당사자의 내재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자

33) “其言平易正直，而不敢爲非常可喜之論，要在于不可易也。”『荀卿論』，p.100.

34) “爲論不求其精，而務以爲異于人。”『子思論』，p.94.

35) “仁義詐力雜用以取天下。”『諸葛亮論』，p.112.

36) 論武王，金聖歎：“驚人之論，無奈出于戒懼之心，便占得世間第一等道理，于是其言反複而愈無窮，恣肆而更悅其純粹也。”朱一清等，『天下才子必讀書』，安徽文藝出版社，1992. p.837.

가 『춘추』를 기록한 것을 보면서 소식은 말한다. 공자의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의 글도 이처럼 깊고 멀리까지 전해질 수 있었다³⁷⁾는 것이다. 사실 이는 소식 본인의 글에도 적용되는 말이다. 소식은 사건의 인물들의 인격적 문제점을 파악해서 역사인물론을 쓴 문인이다.

소식은 글을 씀에 있어서 내용이나 핵심도 없이 남과 다르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³⁸⁾ 이것이 바로 소식이 가장 강조하는 글쓰기의 원칙이다. 그는 역사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 왜 그런 결론으로 귀결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깊고도 먼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

소식은 역사인물론을 쓸 때 그 인물의 사람됨과, 그 인물이 처했던 역사사건을 동시에 논한다. 이는 단순한 인물에 대한 품평이 아니라, 그 인물이 그 당시 상황에서 주어진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역할을 어떻게 했느냐를 보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물론은 한 인물의 역사적 역할의 공과를 바탕으로 그 원인을 분석한 글이다.

소식의 이런 글들은 대체로 진부한 설교가 아니라 다양한 관점으로 심도 있게 파헤침으로써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더욱 중요한 점은 윤리나 도덕적 관점 보다는 국가 득실의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³⁹⁾ 어떤 인물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면 그것이 왜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원인을 따지는 방식의 평론을 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그가 논평한 인물들은 상당수 역사상의 기존 관점을 뒤집는다.

소식은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는 당사자에게 있다 反求諸身”는 관점을 갖고 사람을 본다. 소식은 역사상에 일어난 그 모든 일이 당사자의 인격이 갖고 있는 가치지향의 결과라는 것이다. 소식의 글을 보면 실패하거나 패배한 사람들의 객관적 배경 보다는 그 주인공들의 인격의 결함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소식의 인물론은 일반적인 시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시각에서 전개된다. 예를 들어 도연명이나 유영을 지적한 글을 보면 소식의 인격 이상의 경지가 남달랐음을 알 수 있다. 도연명이 현 없는 가야금을 뜯으며 종종 멧진 기분에 젖곤 했는데, 소식은 그에게 흥취에 젖은 사람이라면 그 ‘無弦琴’ 조차 필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또 유영이 항상 시종에게 삼을 갖고 다니도록 하고 “내가 죽으면 아무데나 묻어라”라면서 마치 생사를 초월한 듯 처신했는데, 소식은 “생사를 초월했다면 묻어라 말라 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한다.⁴⁰⁾ 이처럼 소식의 지적은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에서는 다분히 이상주의적인 데에까지 나아가 있는 것이다.

소식이 지향한 인격 理想이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작은 인의가 아니라 큰 인의를 가진 사람, 현실에 충실하되 그것을 초월하는 흥회를 가진 사람, 국가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 등이다. 이처럼 소식이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인격이라는 것이 거의 고대 중국인들이 가진 완벽한 이상형에 가까워서 오히려 공허한 이상주의가 될 수도 있다. 소식의 인물론을 보면 일반적인 범주의 성공과 성취, 또는 사람들에게 평가된 기존의 신망을 넘어서

37) “思其所以至此之由，故其言尤爲深且遠也。”『論鄭伯克段于鄆』，p.66.

38) “爲論不求其精，而務以爲異于人。”『子思論』，p.94.

39) 花妮娜，「蘇軾“史論文”簡論」，『渭南師範學院學報』，第26卷第1期，2011年1月.

40) 蘇軾，「淵明非達」，p.2029. 「劉伯倫非達」，p.2022.

한 단계 더 나아간 인격 이상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소식의 인물론은 다른 사람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거론하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이 범려다. 범려는 구천이 왕위를 되찾으면 새부리 같은 입을 가진 그의 관상으로 보아 분명히 공신을 숙청하고 정리할 것이라고 보고 미리 그를 떠난다. 떠나기는 했지만 상업으로 큰 부자가 되어 만년을 풍요롭게 보낸 범려를 소식은 “또 하나의 새 부리 입”이라고 지적한다. 악의, 제갈량에게도 마찬가지로 소식은 상당히 이상주의적 인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소식처럼 잘잘못을 들어가며 각각의 사안과 인물에 대한 논평은 할 수 있지만, 과연 당시의 상황에서 그런 이상이 가능했었던가 하는 객관적이고 필연적인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참고문헌】

『蘇軾文集』, 中華書局, 1986.

遊國恩·王 起 主編, 『中國文學史』, 人民文學出版社, 1992.

袁行霈 主編, 『中國文學史』, 高等教育出版社, 1999

曾棗莊, 『蘇文彙評』, 四川文藝出版社, 2000.

周國林, 「評蘇軾的人物史論」, 『長沙電力學院學報』, 第16卷2期, 2001年5月.

花妮娜, 「蘇軾“史論文”間論」, 『渭南師範學院學報』, 第26卷 第1期, 2011年1月.

陳曉芬, 「蘇軾史論文中的人格思考」, 『吉安師專學報』(哲學社會科學), 21輯, 2000.

林 崢, 「蘇軾史論文的思想與藝術特征」, 『南方論刊』, 2013年 第6期.

嚴 瀾, 「論蘇軾史論散文的藝術特色」, 『南方論刊』, 2006年 第11期.

李 哲, 「蘇軾歷史人物評價思想研究」, 『河北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3年9月.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국문	소식, 소동파, 산문, 역사인물론, 「伊尹論」, 「論管仲」, 「留侯論」		
	영문	SuShi, Dongpo, Prose, Historical Personage Review, <i>Yiyin, Guanzhong, Liuhou</i>		
<div><div>A study on Features of Sushi’s Historical Personage Review</div><div>Ahn, Hei-Jin</div><div><p>Dongpo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writers in Chinese history and he leaves 3,700 prose works as well as many verses. His writings on Chinese historical writings on Chinese historical figures are very logical and unique. So many of his writings are considered as classic masterpieces and essential model texts for civil service examination.</p><p>This is a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Dongpo's around 200 reviews of historical figures. In Dongpo's writings, he does not just record the objective facts of historical figures and related events, but focuses on the essential issue of how such events are happened to them. He views that the inner character of the historical figure is the cause of the events he experiences. When Dongpo writes about a historical figure, he simultaneously narrates historical events with the character. It is not a simple record of a historical figure. Dongpo evaluates how a character plays political, social and military roles in the environment given to him at that time. In other words, his tries to analyze the cause of historical figure’s merits and faults.</p><p>Dongpo's writings are generally not cliché sermons, but in-depth perspectives from various points of view. He then judged a person with a basic view that "all problems start from the person's character." The main force of the Dongpo writings is the emphasis on the principle and philosophy of people's lives. However, Dongpo's writings show that historical figures judged only an idealistic view of their behavior in the reality of the time.</p></div></div>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안희진 / 安熙珍 / Ahn, Hei-Jin		
	소 속	단국대학교 외국어대학 중국어과		
	Em@il	china@dankook.ac.kr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8년 05월 26일	심 사 일	2018년 05월 29일
	수 정 일	2018년 06월 17일	게재확정일	2018년 06월 22일